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김 용 석*

〈차

례〉

- | | |
|---------------------|----------------|
| 1. 들 머 리 | 3.2. 보조동사의 의존성 |
| 2. 앞선 연구들에 대하여 | 3.3. 선행어미 ‘-아’ |
| 2.1. 초기의 ‘조동사’ | 4. 보조동사의 범위 |
| 2.2. 전통문법에서의 ‘보조동사’ | 5. 보조동사의 의미문제 |
| 2.3. 변형문법에서의 ‘복합동사’ | 5.1. ‘버리다’ |
| 3. 보조동사와 복합동사 | 5.2. ‘내다’ |
| 3.1. 같은 형태의 거듭쓰임 | 6. 마 무 리 |

1. 들 머 리

국어의 동사들 가운데에는 “제 홀로는 완전한 풀이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동사의 뒤에 붙어서 그 동사의 풀이를 돕는 것”⁽¹⁾으로 보이는 한 때가 있다. 이른바 ‘보조동사(조동사)’ 또는 ‘의존동사’라는 것이 그것인데, 이들은 최현배(1937)이래 전통문법이나 학교문법에서 중요한 하나의 문법적 범주로 여겨져 온 것들이다. 그러나 근래의 변형생성론자들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보조동사에 대한 견해가 매우 달라져서 그 개념이나 범주의 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심지어 이러한 보조 동사를 그대로 하나의 본동사로 볼 것을 제안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들 가운데 씨끝 ‘-아’나 ‘-고’로 연결된 것들을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조교수

(1) 전통문법이나 학교문법에서 보조동사에 대한 풀이가 대부분 그러하다. (최현배 1937 : 296f, 이희승 1965 : 67f, 정인승 1968 : 48f 등 참조)

복합동사(compound verb)의 한 성분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국어의 보조동사가 전통문법에서 말하듯이 이름 그대로 앞동사의 뜻을 돕는 것만이 아님은 물론, 변형론자들의 설명처럼 그것이 하나의 본동사이거나 또는 앞동사와 결합하여 단일체로서의 복합동사를 이루는 한 성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앞동사의 어간까지로 표현되는 명제(proposition)부분에 대한 양상(modality)의 한 특수한 요소라고 보는 바이다.⁽²⁾ 따라서 ‘보조동사’라는 용어도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편의상 우선 그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다만 전통문법에서의 ‘보조동사(도움 움직씨)’와는 그 개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앞으로 점차 밝혀질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분명히 하나의 동사 형태이면서도 본동사로 쓰일 때에만 글자 그대로의 의미(literal meaning), 곧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움직임울 나타내고, 이른바 보조동사로 쓰일 때에는 그러한 실질적인 움직임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말할이(speaker)의 주관이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표면상 복합동사들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다른 동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한국어의 보조동사를 두고 우선 앞선 연구들을 대략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확정한 다음, 특히 보조동사와 복합동사의 서로 다른 특성들을 알아 보고, 보조동사를 가려 낼 수 있는 잣대를 세워 그에 따라 한국어의 보조동사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요컨대 종래의 보조동사라는 문법범주에 대한 근래의 회의(특히 「한국언어학회」 공동연구회(1978년 12월)의 토론내용)⁽³⁾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는 ‘보조동사’의 범주가 엄연

(2) 김민수(1977: 268~302)에서는 이를 “술부의 본체부에 대한 의존어(auxiliary)로서 중단어로 된 우회형(periphrastic form)”이라 하여 서상(aspect), 법성(modality), 부정(negative), 동태(voice)등으로 하위분류하고 이들은 모두 사리(事理)에 대한 양상(樣相)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고, 성기철 및 김영희 교수도 서정수(1978: 189)에서 보조동사를 modal요소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 일이 있다.

(3) 서정수(1978). ‘국어의 보조동사’(공동 연구회 토론내용). 언어, 제 3권 제 2호, 한국언어학회, pp. 179~197 참조.

히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 그것들이 매우 규칙적이고 생산적이어서 국어 표현의 다양화에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앞선 연구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국어문법에 있어서 보조동사(조동사)라는 개념이나 그 범주가 어떻게 파악되어 왔는지 이들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2.1~2.3의 세가지 경향으로 크게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요약과 필자의 견해를 2.4에서 밝히기로 한다.

2.1. 초기의 '조동사'

우리의 말본 풀이에 있어서 '조동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것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구한말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길준의 필사본 「조선문전」(? : 20~4)에서이었다. (김민수, 1982 : 213~226 참조) 그러나 그 '조동사'란, “……動詞의 一種으로 一切動詞의 意味不足處를 補助하는 者……”라 하여 동사의 어간에 붙는 갖가지 씨끝(어미)이나 보조어간파위들을 그 예로 들어 놓고 있다. 나중에 완전한 책으로 발간된 그의 「대한문전」(1909 : 46~64)에서는 이러한 조동사를 따로 빼어 새로운 독립품사로 세우기까지 하였다. 그후 박승빈의 「조선어학」(1935 : 285~8)에서도 영어의 조동사(auxiliary verb)와 흡사한 것이라 하면서 동사뿐만 아니라 각종의 용언에 다 사용된다는 이유로 '조용사'라는 이름을 써서 그의 12 품사중의 하나로 설정한 일이 있는데 그 내용도 앞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⁴⁾ 이들은 모두 당시의 일본문법을 그대

(4) 박승빈(1935 : 285)에서는 '조용사'란 “용언과 조사(어미)와의 사이에 삽입되는 것으로서 용언의 내용에 일정한 의의를 첨가하는 임무를 가진다”고 하고, 다음의 3 가지로 분류하였다.

- 1) 태(voice)를 표시하는 것 : 이, 히, 리, 기, -지
- 2) 존경을 표시하는 것 : 시
- 3) 시상(tense)를 표시하는 것 : 쓰(았), 겠(겠)

로 답습한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보조동사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2.2. 전통문법에서의 ‘보조동사’

그러다가 최현배(1937: 296~7, 502~33)에 와서는 위의 조동사 개념들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움직씨의 한 갈래로서의 「도움 움직씨(보조동사)」라는 범주를 새로이 설정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국어문법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는 보조동사의 범주·개념은 대체로 이에 제시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그 의미나 문법적 기능으로 보아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 잡다하게 포괄되어 있어서 지금의 말본 풀이에 적잖은 혼란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정렬모(1946: 93~6)에서는 ‘조동사’를 “다른 말을 통솔하고 이것으로 자기에게 없는 실질뜻을 보충하는 동사”라고 정의하고, ‘연구하다’, ‘정결하다’의 ‘하다’와 함께 ‘이다’, ‘아니다’ 따위까지를 포함시켜 일종의 형식동사라 하여 보조동사의 범위를 훨씬 넓혀 놓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른바 전통문법에서의 보조동사 개념은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이 도입됨과 함께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2.3. 변형문법에서의 ‘복합동사’

2.3.1. 근래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에 따른 몇몇 연구들에서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보조동사의 범주에 대하여 통사·의미론적 입장에서 아주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를테면 이홍배(1970)등에서는 이 보조동사구문을 겹설로 보아 뒷동사(보조동사)를 모문장(matrix sentence)의 본동사로 보고 앞동사(본동사)를 내포문의 본동사로 처리하였는가 하면, 손호민(1973, 1976)등에서는 두개의 동사(본동사·보조동사)가 일종의 복합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결국 국어문법에서 보조동사라는 범주를 따로 세우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최근 대부분의 국어학

자들도 이에 따르는 경향이다.

2.3.2. 한편, 역시 보조동사를 복합동사의 한 성분으로 보는 이기동(1976)등에서는 이들 보조동사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그들이 본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와 보조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동사의 의미에 관한 연구는 보조동사의 본질을 해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2.3.3. 그리고 서정수(1980)에서는 최현배(1961)에 제시되어 있는 보조용언들을 모두 망라하여 이들을 ‘비합성적 보조용언’과 ‘합성적 보조용언’으로 크게 두가지로 갈라보고 특히 앞의 것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들이 보조용언의 범주에서 제거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른바 ‘비합성적 보조용언’들은 ‘합성적 보조용언’들과는 달리 그 선행용언의 어미가 관형형, 명사형, 부사형 따위로 잡다하다는 점과 함께 그 보조용언들이 ‘—게 만들다’, ‘—게 되다’ 따위를 제외하고는 대개 대동사나 형식동사인 ‘하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보조동사란 그 선행동사의 어미가 ‘—아’인 것만을 가리키며 대동사나 형식동사가 아닌 것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2.4. 요약 및 결론

이상, 그 동안의 국어 보조동사에 관한 논의들을 크게 세가지로 대강 살펴 보았거니와 2.1의 ‘조동사’ 개념은 우선 그것이 동사형태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도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으나 그 이후의 주장들에도 각각 문제점이 있어서 종래의 보조동사 개념은 어차피 국어문법의 합리적인 기틀을 위하여 수정되거나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겠음을 일깨워 준다 하겠다. 왜냐하면 먼저 전통문법에서의 보조동사란 그 용어자체가 ‘앞서는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듯하나 실제로는 그것이 앞서는 동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곧 앞동사에 대한 단순한 보조로서 그 풀이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게다가 보조동사라고 하는 개념아래 너

무나 잡다한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을 뿐더러 구문구조상으로도 이른바 어찌꼴 아래에 오는 것이니 오히려 수식을 받는 것이 되어서 앞것(선행동사)을 돕는다는 뜻으로서의, ‘보조동사(도움움직씨)’라는 개념은 스스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동사’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 보조동사가 모문장의 본동사라는 견해, 또는 보조동사는 복합동사의 일부라는 견해는 양쪽 다 이른바 보조동사도 구체적인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또는 본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동사라는 전제가 아니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역시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 a. 순이가 돈을 찢었다.
- b. 순이가 돈을 버렸다.
- c. 순이가 돈을 찢어 버렸다.
- d. 순이가 돈을 찢어서 버렸다.

예문 (1a—d) 가운데서 우리는 보통 (1c)에서의 ‘버리다’만을 보조동사라고 하는데 이때 과연 ‘버리다’가 본동사 ‘찢다’를 돕는 것으로 파악되는가? 서정수(1971: 209~210)에서는 보조동사는 대부분 본동사로 쓰이던 것이나 이른바 어찌꼴과 어울려 쓰일때에 한해서 특수한 뜻으로 특수한 구실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버렸다”에서의 ‘읽어 버렸다’는 ‘다 읽었다’ 또는 ‘읽는 동작을 마쳤다’라는 뜻으로 보아서 보조동사 ‘버리다’는 ‘읽’는 동작을 제약하고 있는, 곧 ‘읽어’의 동작이 완결되는 상태에 있음을 부연하는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보조동사라는 것이 어찌꼴로 되어 있는 바로 앞의 (본)동사의 뜻만을 제약하거나 부연하는 것이 아니라 앞동사를 풀이말로 하는 월(명제부분)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가지는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내가 그 책을 읽’는 사실(명제)에 대한 화자(여기서는 ‘나’)의 느낌이나 판단 따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지로 (1c)의 ‘버렸다’는 ‘순이가 돈을 찢’은 사실(명제)에 대하여 이 사실을 표현하는 이(화자)가 가지게 된 주관적인 판단 또는 감정(‘아까움’ 따위)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c)에서의 ‘버리다’는, (1b)에서 쓰인 ‘버리다’의 본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1d)에서의 ‘버리다’와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다른 것이다. 곧, 이러한 ‘버리다’ 따위 보조동사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동작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단위가 아니라 문법범주로서의 하나의 양상(modal)요소라 할 만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김민수(1977: 268~302) 및 서정수(1978: 189~90)에서도 암시 또는 피력된 바 있거니와 요컨대 보조동사와 본동사를 각각 하나의 동사로 보거나 이들을 한데 묶어 한 단위의 동사구성으로 보는 것은 둘 다 보조동사를 다른 일반동사와 동등하게 본 나머지 그 의미나 기능상의 특성을 경시한,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처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어째서 보조동사를 단순히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한 성분으로 보거나 모문장의 본동사로 볼 수 없는지를 알아보자.

3. 보조동사와 복합동사

일반적으로 ‘복합동사(compound verbs)’란 두 동사가 결합하여 제 3의 뜻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의 동사로 인식되는 형태를 가리키는 데⁽⁵⁾ 이들은 한 동사의 출기에 다른 동사가 직접 붙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대개 두 동사가 씨끝 ‘-아’나 ‘-고’에 의해서 결합되어 ‘하나의 동사’를 형성하는 바, 씨끝 ‘-아’나 ‘-고’의 뒤에 ‘서’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재호·박병채외, 1981: 94~7 참조) 예컨대 “빌어먹다”는 “거지노릇을 하다”라는 제 3의 뜻(한가지 행위)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빌어서(그것을) 먹다”라는 두가지 동작으로

(5) ‘복합동사’라는 용어는 ‘합성동사’라는 용어와 섞바뀌어 쓰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복합동사(compound verb)’라 하기로 한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앞쪽일 때만 ‘빌어먹다’를 복합동사라 한다. 이때, 어미 ‘-서’의 개입여부로 두 동사인가 한 동사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말에는 두개의 동사가 ‘-아’나 ‘고’로 연결되는 예가 무수히 많을 뿐더러 이러한 말들을 두고 그것이 하나의 동작으로 이해되는가 두 동작으로 이해되는가 하는 것은 말할이나 들을이의 말마음(언어의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합동사를 엄격하게 골라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이 또한 사실이다. (최현배, 1937: 942f 참조)

특히 보조동사의 경우에는 복합동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앞동사(본동사)의 어미가 ‘-아’로 되어 있는데다가 본동사와의 접합관계가 너무도 밀접한 것이어서 흔히들 {본동사+보조동사}의 형태를 복합동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동사₁+동사₂}라는 형태적인 겹쳐임의 모습은 복합동사와 ‘같은 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보조동사는 앞서 말했듯이 어떤 실질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말할이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며 복합동사의 뒷것(v₂)에 비하여 훨씬 생산적으로 쓰인다는 점등이 그것이다. 이제 그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1. 같은 형태의 거듭쓰임

한 동사에 다른 동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복합동사는 그 두 동사가 같은 형태의 동사일 수 없으나 본동사에 보조동사가 붙는 경우에는 그 두 동사의 형태가 같은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a) 저 사람은 일년동안 빌어 먹었다.
- b)* 저 사람은 일년동안 빌어 빌었다.
- c)* 저 사람은 일년동안 먹어 먹었다.
- (3) a) 영호가 흰 책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 b) 흙탕물이 뛰어들 옷을 버렸다.
- c) 영호가 흰 책을 쓰레기통에 버려 버렸다.

d) 흙탕물이 튀어 옷을 버려 버렸다.

위 예문 (2a)는 “저 사람은 일년동안 거지로 지내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 바, 여기 “빌어 먹었다”는 ‘빌다’의 뜻과 ‘먹다’의 뜻이 복합되어 ‘빌다’만도 아니고 ‘먹다’만도 아닌 제 3의 뜻인 그저 “빌어먹다(거지노릇을 하다)”의 뜻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빌다’나 ‘먹다’중 어느 하나 만이라도 빼 버리면 그 문장의 뜻이 크게 바뀔 뿐만 아니라⁶⁾ (2b)나 (2c)에서처럼 같은 형태의 동사를 거듭쓰면 문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3a)의 ‘버리다’는 (3c)에서와 같이 같은 형태의 ‘버리다’를 거듭써도 그대로 문장이 되며 오히려 (3c)에서는 (3a)에서 감지할 수 없었던 말할이의 심리 상태까지를 포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보조동사 ‘버리다’에 기인하는 것이다. (3b)로 부터 (3d)가 가능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바 이점이 복합동사의 뒷성분과 보조동사와의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조동사의 특수한 쓰임은 그것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 곧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를 뜻하는 동사가 아니라 본동사의 어간까지로 표현되는 어떤 사실(명제)에 대한 말할이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느낌따위 심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요소(양상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조동사는 복합동사의 뒷 성분과는 달리 실질적인 의미(곧 어떤 행위)가 없다함은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리라 고 본다.

- (4) a) 박서방이 돈 꾸러미를 파 물었다.
 b) 영단이가 공을 뛰어 잡았다.
 c) 호랑이는 얼룩말을 잡아 먹는다.
 (5) a) 도사견이 한 어린이를 물어 버렸다.
 b) 우리도 그 방승을 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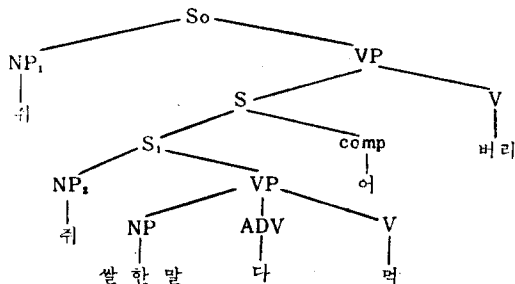
(6) 예문 (2a)에서 두 동사중 한 동사를 빼 버린 다음의 문장들은 우선 타동사 문으로서 목적어가 없으므로 비문법적일 뿐만 아니라 원래의 (2a)에서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짐을 볼 수 있다.

① *저 사람은 일년동안 빌었다.
 ② *저 사람은 일년동안 먹었다.

c) 그는 내 말을 믿어 준다.

예문 (4)는 풀이말이 복합동사로 된 것들이고 (5)는 보조동사가 쓰인 것들이다. 그런데 (4a)에서 “파 묻다”의 ‘파다’나 ‘묻다’의 주어는 모두 ‘박서방’으로 동일주어(Equi-Subject)인데 반해서 (5a)에서는 ‘묻다’의 주어는 ‘도사견’이 되지만 ‘버리다’의 주어는 ‘도사견’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버리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무엇인가? 어떤 동사이든 그것이 동사라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반드시 움직임의 주체(동작주)가 있어야 할텐데 이 ‘버리다’에는 그런 동작주 곧 주어(主)가 없다. 왜냐하면 이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곧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아니어서 어떠한 주어에 대해서도 서술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⁷⁾ 보조동사는 이와같이 표면상의 주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복합동사의 뒷성분과 다른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5a)에서는 ‘도사견’이 ‘어린이’를 버린 바가 없고 (5b)에서도 ‘우리’는 ‘그 방충’을 본 일도 없으며 볼 수도 없고, (5c)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누구에게 ‘내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5a)에서의 ‘버리다’는 “도사견이 한 어린이를 문” 사실에 대한 말함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느낌이나 견해, 판단, 또는 태도를 나타낼 뿐이며 (5b), (5c)도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3c) 및

(7) 복합동사 구문과 보조동사 구문의 통사구조를 동일한 것으로 본 박병수 (1974: 27)에서는 “취가 쌀 한 말을 다 먹어 버렸다”라는 문장의 심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써 보조동사를 상위문의 본동사로 파악한 일이 있다.



(3d)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양상동사(modal verb) 혹은 심리동사(psychological verb)⁽⁸⁾라고나 해야 할 것인데 어떠한 복합동사의 경우에는 앞동사와 뒷동사가 절대로 같은 형태의 것일 수 없는데 비해서 본동사와 보조동사는 그 형태가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은 보조동사를 복합동사의 한 성분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3.2. 보조동사의 의존성

보조동사가 일반 복합동사의 뒷성분과 또 다른 점은 보조동사는 그것이 보조동사인 한 절대로 본동사를 생략하고 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성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보조동사의 경우를 보자.

- (6) a. 철호는 떠나 버렸다.
b. 철호는 떠났다.
c. *철호는 버렸다.
- (7) a. 민구가 집터를 보아 두었다.
b. 민구가 집터를 보았다.
c. *민구가 집터를 두었다.
- (8) a. 나도 그 책을 읽어 보았다.
b. 나도 그 책을 읽었다.
c. 나도 그 책을 보았다.

위에서 보조동사문인 예문 (6), (7), (8)의 a로 부터 보조동사만을 제거시킨 각각의 b는 실제로 행해지는 동작이 a와 같은 것이지만 본동사를 빼버리고 보조동사만을 쓴 (6), (7), (8)의 c는 a와는 무관하거나(8c)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 ‘두다’ 따위는 본동사와 함께 쓰지 않고서는 어떠한 문장도 바르게 구성하지 못함을 말하는데 그 까닭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동사란

(8) 여기서 말하는 심리동사(psychological verb)에 대해서는 Sohn(1976 : 146)을 참조할 것.

어떤 사물에 대한 서술능력이 없어서 그것만으로는 서술기능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합동사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그 성분들중 어느 하나만을 써도 완전한 문장이 됨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 (9) a. 순이가 흐느껴 운다.
 b. 순이가 흐느낀다.
 c. 순이가 운다.
- (10) a.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아라.
 b.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어라.
 c.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
- (11) a. 죄인이 풀어 앉았다.
 b. ?죄인이 풀었다.
 c. 죄인이 앉았다.

위의 예문 (9a)에서의 ‘흐느껴 운다’, (10a)에서의 ‘살펴 보다’, (11a)의 ‘풀어 앉다’는 이른바 복합동사라 하는 것들인데 이들의 의미적 구조를 보면 각각 앞부분(흐느껴, 살펴, 풀어)이 어찌꼴로 되어 뒷부분(운다, 보다, 앉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한 양태(manner)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 또한 본동사와 보조동사와의 관계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신문을 읽어 버렸다’에서의 ‘읽어’가 ‘버렸다’의 양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3. 선행어미 ‘-아’

복합동사의 뒷성분과 보조동사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각 그것들의 선행동사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보조동사는 선행동사를 풀이말로 하는 그 앞의 명제(proposition)에 대한 양상(modal)을 보여 주는 것이지 결코 선행동사하고만의 관계(선행동사의 의미만을 돕는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닌데 반하여 복합동사의 뒷성분은 단지 앞성분(선행동사)과의 결합에 의하여 하나의 풀이말을 이룰 뿐이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 모두 선행동사의 어간에 어미

‘아’가 붙은 다음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나, 이 ‘—아’의 문법적 기능은 이와같이 서로 다른 것이다. 최현배(1937: 342~347)에서는 이러한 ‘—아’를 모두 감속법의 첫째 어찌꼴이라 하고 그 용법이 ‘합동적 용법’과 ‘완성적 용법’의 두가지로 갈라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합동적 용법이라 함은 곧 복합동사를 이루는 용법을 말하는 것이고 완성적 용법이라 함은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결합시키는 방법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용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 다 “어찌꼴”이라는 하나의 문법형태로 처리한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3.2 참조). 왜냐하면 이른바 합동적 용법의 보기로 들어 놓은 다음의 예문(최현배, 1937: 343~5)들을 볼 때,

- (12) a. 아이가 기어 간다.
 b. 사람이 방에 들어 간다.
 (13) a. 고기를 잡아 먹다.
 b. 쥐가 난알을 물어 가다.
 c. 병정을 쏘아 죽이다.
 d. 밥을 얻어 먹다.

이들은 모두 ‘—아’를 가지는 동사가 뒤따르는 동사의 동작에 대하여 그 수(방법)를 가리키는, 곧 부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이때의 ‘—아’를 어찌꼴이라 하여도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완성적 용법에서는, 다음 예문 (14)(최현배님의 예문에서 몇개만 골라 그대로 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행동사(본동사)가 뒤에 오는 동사(보조동사)에 대하여 하등의 부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때의 씨꼴 ‘—아’를 도저히 “어찌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4) a. 강을 막아 낸다.
 b. 고양이가 쥐를 잡아 버리었다.
 c. 하루 열장씩 읽어 간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서정수(1971: 204~8)에서는 복합동사란 한 단위체가 된 것이어서 구문론적으로 그 성분의 분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분상호간의 문법적 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여서 ‘어찌할’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법적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조용언의 경우도 그것이 본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의 미묘한 위상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본용언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고로 하나의 복합관계라 함으로써 크게 보면 결국 같은 것이라 하였다.⁽⁹⁾ 그러나 복합동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본동사와 보조동사와의 관계는 그것이 결코 복합관계를 형성하는, 곧 한 단위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것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요컨대 복합동사의 경우는 씨끝 ‘아’가 두 동사의 의미를 하나로 결합(compounding)시키는 기능을 가지지마는 후자의 경우에는 보조동사가 본래의 어휘적 의미를 상실한 하나의 구문요소(양상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본동사와는 처음부터 의미적으로 결합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경우의 ‘아’는 그 기능이 앞서의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른바 ‘보조동사’의 범주에 드는 무리들과 ‘복합동사’의 뒷성분과의 사이에는 의미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 보았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표로 보이면 대체로 다음 (15)와 같다.

(15)	보 조 동 사	복합동사의 뒷성분
	선행동사와 동일형태 반복 사용 가능 ⁽¹⁰⁾	선행동사와 동일한 형태의 사용 불가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없음	단독으로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음
	선행동사와 직접 구성관계가 아님	선행동사와 직접 구성관계에 있음

(9) 서정수(1971: 214)에서는 잠정적으로

① 어미 ‘어’에 의한 복합용언

② 보조용언에 의한 복합관계—라는 말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0) 이 점에 대하여는 황병순(1979: 41~8)에서도 조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동일조동사를 반복한다하여 조동사를 별개의 범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근거의 하나로 제시한 일이 있다.

4. 보조동사의 범위

우리는 앞에서 보조동사를 복합동사의 뒷성분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없음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강 보조동사의 윤곽을 알아본 셈이며, 따라서 보조동사를 하나의 별개 범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조동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대체 어떠한 것들인가? 최현배(1937: 502~33)에서는 국어의 보조동사로서 13 가지 28 개의 낱말을 제시하여 그것들이 각각 어떤 환경에 쓰이며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를 세밀하게 분류 설명하여 놓았다. 그러나 근래의 다른 연구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그들 중 많은 수를 제거시키기도 하고 혹은 첨가시키기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과 반세기동안에 우리의 언어 자체가 변화하여서가 아니라 보조동사에 대한 인식 또는 개념이 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어쨌든 최근의 보조동사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선행동사의 씨끝이 ‘-아’이고, 잇따르는 후행동사가 본연의 제 뜻을 잃고 비유적인 뜻으로 쓰이는 것들을 보조동사 또는 조동사라 하는 경향인데 물론 이러한 기준도 보조동사를 가려내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만으로는 수많은 복합동사의 후행성분들과 보조동사를 구별해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서는 밑줄 그은 부분이 보조동사인지 복합동사의 한 성분인지를 알른 구별하기가 곤란하다.

- (16) 철수가 영수증을 찾아 살는다.
- (17) 한국에서 64KD램을 만들어 내었다.
- (18) 명희는 종이배를 만들어 보았다.
- (19) 형이 동생에게 그림을 그려 주었다.

위의 예문들에서는 모두 선행동사의 씨끝이 ‘-아’로 되어 있으나, 그 뒤에 ‘-서’를 넣어서 생각하거나 쉽(pause)을 두어 보면 아래와 같은 문

장으로 이해되므로 밑줄 그은 동사형태는 보조동사도 아니고 복합동사의 후행성분도 되지 못하며 다만 앞동사와 주어를 같이하는 또 하나의 동사이어서 그저 하나의 복문을 이루고 있을뿐임을 알 수 있다.

- (20) 철수가 영수증을 찾아(서) (그것들)을 찾는다.
 (21) 한국에서 64KD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에 내어 놓았다.
 (22) 명희는 종이배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여다 보았다.
 (23) 형이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동생에게 주었다.

그러나 예문 (16)~(19)를 다음 (24)~(27)의 뜻으로 말하거나 이해한다면 예문 (16)~(19)의 밑줄 그은 부분은 각각 보조동사라 할 만하다.

- (24) 철수가 영수증을 자주(또는 거듭) 찾는다.
 (25) 한국에서 64KD램을 드디어(또는 마침내) 만들었다.
 (26) 명희는 종이배를 시험삼아(또는 경험삼아) 만들었다.
 (27) 형이 그림을 (동생을 위하여) 그리었다.

위의 예문들을 보면 (16)~(19)에서 후행동사이던 것들이 모두 부사 또는 부사구로 바뀌어 쓰였음을 알 수 있다.⁽¹¹⁾ 한편 이와 같은 보조동사의 의미도 어디까지나 그 본래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관용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것들이 본동사로 쓰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따르면 예문 (16)에서의 ‘찾아 쌓다’, (17)의 ‘만들어 내다’, (18)의 ‘만들어 보다’ 및 (19)의 ‘그려 주다’는 그대로 복합동사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면 앞의 3.1에서 보인 바와 같은 동일형태 반복사용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쌓아 쌓다’, ‘내어 내다’…… 따위에서 어느 것을 관용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어느 것을 비관용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지도 문제

(11) 국어의 보조동사는 modal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modality는 대체로 부사로 대치될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남기심, 1978 : 108~11 참조)

John may beat his wife.

→Probably John beat his wife.

이며 또한 관용적 의미와 비관용적 의미가 결합하여 어떤 제 3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보조동사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다 명시적인 기준을 세워 보조동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 잣대로 대략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선행동사의 씨끝이 ‘-아’일 것.

최현배(1937)로 대표되는 종래 전통문법에서의 보조동사들은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그 선행하는 씨끝이 다양하다.

- (28) a. ‘-지’ : 부정(아니하다, 못하다, 말다)
 b. ‘-게’ : 사동(만들다, 하다), 피동(되다).
 c. ‘-고’ : 진행(있다)
 d. ‘-아’ : 종결(나다, 내다, 버리다)
 봉사(주다)
 강세(쌓다, 대다)
 보유(놓다, 두다, 가지다)
 피동(지다)
 진행(가다, 오다)
 e. ‘-아야’ : 당위(하다)
 f. ‘-기는’ : 시인(하다)
 g. ‘-는/ㄴ/ㄹ’ : 가식(체하다, 척하다, 양하다)
 h. ‘-르’ : 과기(번하다)

그러나 이들 (28a, b) 및 (28e—h)의 무리들은 서정수(1980)에서 낱말이 들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동사의 범주에 넣어 기술할 필요나 까닭이 없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사동’의 ‘만들다’, ‘피동’의 ‘되다’는 그것 자체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어서 이를 따로 보조동사라고 해야 할 근거가 없고, 나머지는 모두 형식동사 또는 대동사(proverb)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어 보조동사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다만 (28c)의 ‘(-고)있다’에 대하여 어떤 이는 그것이 동작동사로 쓰일 때에 한해서, 선행성분과 엄밀하위범주화(strict subcategoriz-

ation) 하지 않음을 들어 보조동사로 취급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보면 (28d)의 것들만 남게 되는 바이들은 한결 같이 그 선행동사의 씨끝이 ‘-아’인 것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다음에 드는 몇가지 보조동사로서의 조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들만을 ‘보조동사’로 규정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동사(본동사)와 동일한 형태일 수 있을 것.

보조동사를 가려내는 잣대로서 선행동사와 동일한 형태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을 세우는 까닭은 어떤 특정 동사가 보조동사로 쓰이게 되면 본래의 (본동사로 쓰일 때의) 뜻을 상실하고 심리적 의미를 가지게 되어 일종의 동음이의어가 되는 현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합동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의미적 통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1 참조) 이제 이러한 기준을 보조동사로서의 첫째 조건을 통과한 앞서의 (28d)의 부류들에 적용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9) a. 순득이는 공책들을 모두 버려 버렸다.
 b. 불경기속에서도 세금을 다 내어 냈다.
 c. *쌀은 논에서 나(아)난다.
- (30) a. 저것을(내 대신) 그에게 주어 줘!
 b. 저것을 이분대신 그분에게 드려 드려!⁽¹²⁾
 c. *저것을 내 대신 그분에게 바쳐 바쳐!
- (31) 이것 좀 보아 보세요.
- (32) a. 만돌이가 장작을 쌓아 쌓는다.
 b. 만돌이가 밤새도록 눈에 물을 대어 댔다.

(12) 이러한 월은 흔히 쓰이지는 않으나, 말합이나 들울이가 모두 ‘이분’보다 아랫사람이고 ‘그분’은 ‘이분’보다도 더 윗사람일 때에는 충분히 가능한 월이다. 곧,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는 벌어진 쪽이 윗사람임을 표시한다).

[말합이<=들울이]<[이분<그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분’이 ‘저것’을 ‘그분’에게 드려야 하는데 ‘이분’의 형편이 그럴 수 없음을 잘 아는 말합이가 들울이에게 ‘이분’의 일(저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일)을 대신 해 줄것을 부탁 또는 명령하는 경우인 것이다. 물론 이때에 “저것을 이분대신 그분께 드려(줘)!”도 안 될 것은 없으나 그렇게 말하면 ‘이분’에 대한 존대나 특히 봉사의 뜻은 월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된다.

- (33) a. 그건 거기 놓아 놓아라.
 b. 그건 거기 두어 두어라.
 c. 그 사람은 돈을 워낙 많이 가져 가지고……
- (34) a. 아무리 이기려 해도 지어 지는 걸 어떡해?
 b. ?그런 꼴도 결국은 지어 지는군!
 c. 그 많은 짐이 다 지어졌다.
- (35) a. 그는 지금쯤 부산에 다 가 갈것이다.
 b. 오늘까지 한 달 동안 비가 와 왔다.

위의 예문들 가운데 (29c)는 우리의 언어습관으로는 도저히 받아 들이지 않는 월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만 따른다면 ‘나다’는 보조동사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나다’는 ‘태어나다’, ‘자라나다’, ‘살아나다’, ‘떨어나다’, ‘늘어나다’, ‘놀어나다’, ‘죽어나다’……와 같이 다른 동사(특히 자동사)와 잘 어울리어 쓰이는데 때로는 본동사로서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본동사의 의미와는 많이 달라진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 바,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보조동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 (30b)의 ‘드리다’는 보조동사 ‘주다’의 높임꼴일 뿐, 의미나 기능상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보조동사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최현배(1937: 523)에서는 ‘주다’, ‘드리다’와 함께 ‘바치다’도 「섬김 도움 움직씨(봉사 보조동사)」의 하나로 넣었으나 (30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쳐 바치다’가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이 ‘바치다’는 언제나 본동사로서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보조동사의 목록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33c)의 ‘가지다’는 다른 보조동사들과 같이 자유로이 끝바꿈을 하지 못하고 어느 경우에도 ‘—아 가지고’로만 쓰임이 하나의 특징이다. 게다가 이 ‘—아 가지고’는 다음과 같이 연결의미 ‘—아서’와 환치(substitution)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보조동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에는 주저됨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네째 조건에서 다시 설명됨).

- (36) a. 내가 워낙 바빠 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b. 내가 워낙 바빠서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 (37) a. 여기에 와 가지고 나를 안 만나다니!
 b. 여기에 와서 나를 안 만나다니!
- (38) a. 물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
 b.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기가 어렵다.

세제, 홀로 쓰일 수 없을 것.

전통 문법에서 국어의 ‘보조동사’는 본동사 없이 제 홀로 쓰이지 못할
 을 가장 큰 특징으로 삼아 왔는 바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
 다. 매김씨나 매김꼴의 아래가 아니고서는 쓰이지 못하는 이른 바 ‘안용
 근 이름씨(불완전 명사)’들이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이
 림씨가 아니고 환경(context)에 따라 그 지시대상이 다른 것이며 그 자체
 만으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통사적으로는 명백히
 임자씨(체언)스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의하
 고 있는 ‘보조동사’도 그 앞에 씨꼴 ‘—아’를 가진 본동사가 없이는 그것
 이 보조동사로서의 것인 한, 아무런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면
 서도 표면상 풀이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조동사가 쓰인 월
 에서 본동사를 제거하고 났을 때에도 표면구조상 월의 모습(주·술관계)을
 갖추기는 하나 그 월의 뜻은 애초에 말할이가 나타내고자 했던 내용과
 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거나 아예 뜻이 통하지 않는 월이 되고 만다. 다
 음 예문들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 (39) a. 그가 이 사실을 알아 버렸다.
 b. *그가 이 사실을 버렸다.
- (40) a. 이 아이가 어른도 못 할 일을 해 내었다.
 b. *이 아이가 어른도 못 할 일을 내었다.
- (41) a. 저 가게 주인은 물건값을 잘 깎아 준다.
 b. *저 가게 주인은 물건값을 잘 준다.
- (42) a. 너도 그 소문을 들어 보았니?
 b. *너도 그 소문을 보았니?

- (43) a. 개가 짖어 뿡는다.
b. *개가 뿡는다.
- (44) a. 아이들이 떠들어 댄다.
b. *아이들이 댄다.
- (45) a. 내일까지 백만원을 마련해 놓아라.
b. *내일까지 백만원을 놓아라.
- (46) a.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두었다.
b.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었다.
- (47) a. 이 물건은 저 공장에서 만들어 진다.
b. *이 물건은 저 공장에서 진다.
- (48) a. 오늘 부터 이 책을 읽어 가자.
b. *오늘부터 이 책을 가자.
- (49) a. 박과장이 회사에서 쫓겨 났다.
b. *박과장이 회사에서 났다.
- (50) a. 음식을 잘못 먹어 가지고 배탈이 났다.
b. *음식을 잘못 가지고 배탈이 났다.

요컨대 보조동사는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서 본동사로 풀이되는 어떤 명제에 대한 말할이의 심리적 태도만을 보이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표면월의 주어에 대한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이 위와 각 예문들 b로써 또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보조동사의 의존성이야말로 보조동사를 단순히 복합동사의 한 성분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한 까닭이 된다.

네째, 심리적 의미(psychological meaning)를 가지는 것일 것.

여기서 심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어떤 사실에 대한 말할이의 주관적 견해나 느낌, 판단 또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즐겁다’, ‘기쁘다’, ‘슬프다’, ‘피롭다’, ‘섭섭하다’, ‘그립다’ 따위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형용사와는 다른 것이다. (Sohn, 1976 : 146f 참조) 이를테면,

- (51) a. 나는 그와 헤어졌다.
b. 나는 섭섭하다.

- c. 나는 그와 헤어져서 섭섭하다.
- d. 나는 그와 헤어져 버렸다.

에서, (51a)는 단지 ‘내가 그와 헤어진’ 사실만을 말하고 (51b)는 나의 심정만을 표현한 것이며, (51c)는 (51a)의 사실이 (51b)와 같은 심정이 된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지만 (51d)는 (51c)와 같이 해석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혹은 그 두 가지 심정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어쨌든 이 (51d)를 (51a)와 비교해 볼 때 (51a)에는 특정의 어떤 사실만 나타나고 있으나 (51d)에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말할이의 감정이나 태도까지를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오로지 보조동사 ‘-아 버리’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의미란 바로 이와 같은 보조동사의 기능스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말할이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의미는 말할이나 들을이에게 있어서 역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어서 매우 복잡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보조동사를 사용한 문장과 그 보조동사를 제거한 문장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그 보조동사가 말할이의 어떠한 심리적 상태나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른바 보조동사가 쓰인 다음 예문들을 보자.

- (52) a. 차가 고장이 났다.
- b. 차가 고장이 나 버렸다.
- (53) a. 순이도 그 책을 읽었다.
- b. 순이도 그 책을 읽어 보았다.
- (54) a. 이 애가 그 책을 다 읽었다.
- b. 이 애가 그 책을 다 읽어 내었다.
- (55) a. 그가 나를 돕는다.
- b. 그가 나를 도와 준다.
- (56) a. 아이들이 떠든다.

- b. 아이들이 떠들어 쌍는다.
- (57) a. 매미가 운다.
b. 매미가 울어 낸다.
- (58) a. 영희가 창문을 열었다.
b. 영희가 창문을 열어 놓았다.
- (59) a. 철호는 태권도를 배웠다.
b. 철호는 태권도를 배워 두었다.
- (60) a. 새싹이 돋는다.
b. 새싹이 돋아 난다.
- (61) a. 우리는 누구나 읽는다.
b. 우리는 누구나 읽어 잔다.
- (62) a. 그는 여기서 십년을 살았다.
b. 그는 여기서 십년을 살아 왔다.
- (63) a. 영호가 밥을 먹는다.
b. 영호가 밥을 먹고 있다.
- (64) a. 많은 사람이 그 차에 탔다.
b. 많은 사람이 그 차에 타 졌다.⁽¹³⁾
- (65) a. 막동이는 기분이 좋아 어쩔줄을 모른다.
b. 막동이는 기분이 좋아 가지고 어쩔줄을 모른다.

위의 예문 (52)~(65)의 각각 b의 월들을 우리는 보조동사구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보조동사구문들이 나타내는 뜻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실질적으로 일어난(있는) 사건(event 또는 action)은 사실상 각각 대응되고 있는 a의 월들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a의 일들이 각각 말할이에게 어떻게 비쳐졌는가에 따라서 b들과 같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예문 (63b)에 쓰

(13) 이 예문은 이기동(1978: 53)에서 옮긴 것임. 비슷한 예문으로 “그 방에 열 명이 자 졌다”, “열음판 위에 서 졌다” 따위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아 지다’ 구문은 다른 보조동사구문들과 마찬가지로 선행문장의 표면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아 지다’ 구문(선행동사가 타동사인 구문)과 다르다.

(보기) ☐ a. 굴뚝을 막았다.
☐ b. 굴뚝이 막아 졌다.
☐ c. 집을 지었다.
☐ d. 집이 지어 졌다.
☐ e. 철수가 똑똑하다.
☐ f. 철수가 똑똑해 졌다.

인 ‘—고 있다’는 (63a)의 “영호가 밥을 먹는다”는 사실에 대한 말할이의 주관적인 견해나 태도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기동(1978b)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 있다’는 어떤 동작이나 과정 및 상태의 제속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말할이의 심리적 판단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 있다’는 심리적 의미를 가지는 보조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 (65b)의 ‘—아 가지고’도 문제될 수 있는데, 최현배(1937 : 529)에서는 이를 ‘—아 놓다’, ‘—아 두다’와 함께 한 동아리로 묶어 “풀이말의 실질적 결과물 보유함을 나타내는 두기(지님) 도움 움직씨”라 하였으나 이는 ‘가지다’의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다음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 가지고’의 ‘가지다’는 그대로 ‘지님’의 뜻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66) 그 처녀는 얼굴이 예뻐 가지고 신랑감이 많다.
- (67) 그는 요즘 돈이 없어 가지고 찼찼 맨다.
- (68) 날씨가 워낙 더워 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
- (69)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다.
- (70) 영수가 여기 와 가지고 놀기만 한다.
- (71) 그 돈으로 책을 사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런데 위의 예문들을 살펴 보면, (66)~(69)에서의 ‘—아 가지고’는 한 덩어리로 이른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서’와 같은 기능을 보이고 있으며 (70~71)에서는 ‘행위연속’의 연결어미 ‘—아서’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아 가지고’와 ‘—아서’는 서로 환치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 (66)’ 그 처녀는 얼굴이 예뻐서 신랑감이 많다.
- (67)’ 그는 요즘 돈이 없어서 찼찼 맨다.
- (68)’ 날씨가 워낙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
- (69)’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어날 수도 없다.
- (70)’ 영수가 여기 와서 놀기만 한다.

(71)' 그 돈으로 책을 사서 공부를 한다.

이와 같이 ‘—아 가지고’는 연결어미 ‘—아서’와 거의 의미차이 없이 자유로이 환치될 수 있을뿐더러 다른 보조동사들처럼 활용(conjugation)을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동사로서의 의미를 그대로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보조동사의 범주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위에 제시한 네 가지의 조건에 따라 종래 보조동사로 보아 온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여 보며, ① 가다/오다, ② 내다, ③ 버리다, ④ 보다 ⑤ 주다, ⑥ 지다, ⑦ 쌓다, ⑧ 대다, ⑨ 놓다, ⑩ 두다의 10가지가 될 수 있다. 이밖에 ‘먹다’를 보조동사로 보는 이가 있으나(이기동: 1976 및 황병순: 1979), 우선 ‘먹어 먹다’가 통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아 먹다’의 ‘먹다’는 본래의 의미로부터 크게 변질되어 특수하게 쓰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에 앞서는 동사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속여 먹다, 잊어 먹다, 팔아 먹다, 들어 먹다 따위 뿐임) 이를 굳이 보조동사의 범주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빠지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본래 동사이기는 하나 언제나 일부의 상태동사(형용사 또는 상태성 자동사의 일부)하고만 어울리어서 형용사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를 보조동사가 아닌 ‘보조형용사’로 보고자 하는 바 아래의 예문들이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72) a. 그는 게울러 빠졌다.
 b. 그는 몹씨 게으르다.
 c. *그는 게울러 빠지고 있다.
- (73) a. 구두가 닳아 빠졌다.
 b. 구두가 몹씨 닳았다.
 c. ?*구두가 닳아 빠지고 있다.
- (74) a. 그 친구는 늙어 빠졌다.
 b. 그 친구는 몹씨 늙었다.
 c. ?* 그 친구는 늙어 빠지고 있다.

5. 보조동사의 의미문제

국어 보조동사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의 앞부분에서 밝혔듯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리고 근래에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의미에 관하여는 그다지 깊은 연구가 없었고 대체로 형태적·통사적 기술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현배(1937)에서 그의 각 보조동사들을 13가지의 의미범주로 하위분류해 놓은 이래 그것이 거의 수정없이 일반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가 이기동(1976, 1977, 1978 a, b, 1979)에 와서야 몇가지 보조동사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것들이 각각 특수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분석은 그 태도나 방법에 따라 또는 분석자의 언어직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분석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가지 보조동사들 가운데서 임의로 ‘버리다’와 ‘내다’를 택하여 그 의미·기능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앞선 연구의 결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5.1. ‘버리다’

종래 국어 문법에서 ‘버리다’와 ‘내다’를 흔히 다 같이 종결, 완결 또는 완료의 보조동사로 해 왔으나, 보조동사로 쓰일 때의 ‘버리다’나 ‘내다’의 의미가 결코 ‘완료’나 ‘종결’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먼저 ‘버리다’의 의미와 기능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 (75) a. 그는 그가 맡은 일을 다 했다.
b. 그는 그가 맡은 일을 다 해 버렸다.

에서 (75a)나 (75b)가 모두 ‘그’가 맡은 일을 ‘완료(종결)’하였음을 나타내고 있기는 마찬가지임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곧, ‘버리다’의 존재여부에 따라 (75a)는 완료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75b)는 완료인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75b)에 쓰인 ‘버리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얼른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보조동사로 쓰인 것이 어떤 고유의미(inherent meaning)나 단일의미(simple meaning)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명제에 대한 말할이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들을이로서는 그것을 쉽사리 포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러한 보조동사들의 의미가 적당히 아무렇게나 해석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낱말들은 기본적·개념적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비유적으로 확대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보조동사는 바로 이러한 쓰임에 따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기동, 1976: 217f). 따라서 보조동사 ‘버리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본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부터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버리다’가 본동사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 보자.

(76) a. (해진이)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b. (휴탕물이 휘어) 옷을 버렸다.

동사 ‘버리다’는 기본적으로 위의 예문 (76a)에서와 (76b)에서의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앞의 것은 ‘없앰’ 또는 ‘제거’의 뜻으로, 뒤의 것은 ‘망침’ 또는 ‘못쓰게 됨’의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없앰’ 또는 ‘제거’란 구체적으로 ‘객체를 주체로부터 멀어지게 함’의 뜻이고 ‘망침’ 또는 ‘못쓰게 됨’이란 ‘객체의 상태가 변화됨(특히, 나쁜 쪽으로)’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버리다’의 이와 같은 뜻은 좀더 발전한여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결국 같은 것으로 보인다.

(77) a. 그 분이 세상을 버렸다.

b. (잘못 가르쳐서) 아이를 버렸다.

그런데 ‘버리다’가 보조동사로 쓰일 때에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의미들

이 훨씬 더 추상화, 관념화하여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쓰임에서 우리는 말할이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여겨진다.⁽¹⁴⁾

(78) 그 사람이 떠나 버렸다.

(79) 우리도 가 버릴까?

(80) 그의 병이 나아 버렸다.⁽¹⁵⁾

어쨌든 보조동사로서의 ‘버리다’의 뜻은 그렇게 단순히 ‘종결’이나 ‘완료’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행하여짐이 말할이의 심중에 어떻게 비치는가를 나타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78)~(80)의 예문들은 이기동(1976)에 서처럼 그 주어가 일인칭인가 아닌가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대의 어긋남’ 또는 ‘부담의 제거’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예문 (78)에 쓰인 보조동사 ‘버리다’는 “그 사람이 떠남”이 말할이의 기대에 어긋난 것인지 아니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명료하게 드러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주어가 일인칭인 “나는 바보가 되어 버렸다”를 반드시 ‘부담의 제거’라고만 볼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음에는 흔히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종결’이나 ‘완료’의 뜻을 가진다고 보아온 보조동사 ‘내다’의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여 보자.

(14) 이기동(1976 : 216~21)에서는 이와 같은 보조동사 ‘버리다’가 말할이의 「기대의 어긋남」을 나타내거나 「부담의 제거」를 뜻하고, 특히 말할이(화자)와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뜻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발화의 상황이 명시될 때에만 유효한 것일 뿐이다. 예를들어 “그 사람이 떠나 버렸다”만으로는 ‘기대의 어긋남’을 나타내는지 ‘부담의 제거’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5) 이 예문은 이기동(1976 : 219f)에서 그대로 옮긴 것인데 그는 이 문장을 사용하는 화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미리 생각했을 것이라고 보아 ‘기대의 어긋남’이라 풀었으나 사실은 그와 반대일수도 있음을 지나쳐 버렸다고 본다.

① 그의 병이 낫지 않기를 바랐다.

② 그러나 그는 나았다.

③ 그래서 화자의 기대가 어그러져서 실망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5.2. '내다'

본동사로서의 '내다'는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낱말이다.⁽¹⁵⁾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의 하나인데 이기동(1976 : 224~31)에서는 이 '내다'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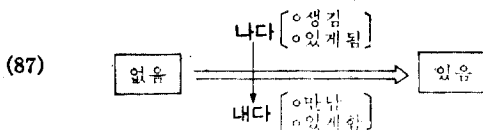
- (81) '내다' : ① 자리 옮김
② 상태의 변화

그러나 '내다'의 뜻을 (81)의 ①이나 ②로 보면 아래와 같이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 (82) 다방을 내었다.
(83) 허가를 내었다.
(84) 빗을 내었다.
(85) 사고를 내었다.
(96) 화를 내었다.

⋮

결국 (81)은 매우 한정된 일부의 '내다'의 의미만을 보일 뿐, 보다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내다'의 의미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다'의 여러가지 쓰임들을 살펴 종합해 본 끝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곧, '내다'는 본래 '나다'에서 파생된 동사(나+이이다)로서 "없던 것을 있게 함"의 기본적인 뜻을 나타내는 낱말이라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6) 이희승(1976)에서는 '내다'의 뜻을 16가지나 나열해 놓고 있으나 그런식으로 늘어 놓자면 그와 같이 16가지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곧, 본래는 없던 일이나 물건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혹은 저절로 생겨
날 때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나다’로 표현하고 그러한 변화(어떤 일이나
물건이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변화)를 생기게 할 때 우리는 ‘내다’를 써서
표현한다. 가령,

- (88) a. 사고가 났다.
- b. 사고를 내었다.
- (89) a. 적자가 났다.
- b. 적자를 내었다.
- (90) 이 학생이 등록금을 내었다.
- (91) 최박사가 책을 내었다.

위에서 (88a) 및 (89a)의 ‘나다’는 그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 되었음만을 나타내지만 (88b)
와 (89b)는 의도적이진 비의도적이진 일정한 행위자(actor)의 특정 행위
(곧, 그리 함)를 나타내고 있다. (90) 및 (91)의 ‘내다’는 얼른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지만 (87)을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해 보면 같은 방식으로 풀
이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뜻의 ‘내다’가 보조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떠한 의미·기능
을 가지는가 알아 보자.

- (92) 영수가 그 어려운 책을 다 읽어 내었다.
- (93) 어린애가 어른을 이겨 내었다.
- (94) 나는 그 고통을 참아 내었다.

보조동사 ‘내다’가 쓰인 위의 예문들이 모두 다음과 같은 속뜻을 지니
고 있음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 것이다.

- (92)’ 영수가 그 어려운 책을 다 읽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영수가 그
일을 했다.
- (93)’ 어린애가 어른을 이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어린애가 그 일을
했다.
- (94)’ 내가 그 고통을 참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했다.

위에서 (92)~(94)는 각각 (92)'~(94)'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다 간결하게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어 낼 수 있다.

(95) [P]는 어렵다. 그런데 [P]를 하 \longleftrightarrow [P]아 내 \neg .

(P=Proposition, 그런데=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95)의 P를 구성하는 주어는 반드시 유정명사(+animate)이어야 하고 서술어는 반드시 동작동사(action verbs)로서 피동형이 아니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만일 주어가 유정명사가 아니거나 서술어가 동작동사가 아니면 다음과 같이 비문(ungrammatical sentence)이 된다.

(96) *물이 산 아래로 굴러 내었다.

(97) *천둥이 우르렁거리어 낸다.

(98) *물이 얼어 내었다.

(99) *희자가 예뻐 내었다.

(100) *상제가 슬퍼 낸다.

(101)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어 내었다.

(102) 그 바위가 나를 살려 내었다.

(103) 저 나무는 100년이나 풍상을 견디어 내었다.

(102), (103)의 문장이 가능한 것은 주어인 ‘바위’나 ‘나무’를 의인화(personifying)하였기 때문이므로 이상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은 보조동사 ‘내다’는 간단히 말해서, 말할이가 어렵다고 보는 어떤 일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가지는 말할 이의 어떤 심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만하다. 종래 ‘버리다’나 ‘내다’를 ‘종결(완료)’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본 까닭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대개는 ‘앓’과 더불어 쓰였기 때문일 뿐이다.

6. 마 무 리

지금까지 한국어의 보조동사(보조형용사 제외)에 대하여 먼저 그 연구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근래에 보조동사가 복합동사의 한 성분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증시하여 보조동사와 복합동사의 다른 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보조동사’라는 별도의 범주를 설정함이 타당함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보조동사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것들을 네 가지 기준에 따라 10개로 설정하고 그것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버리다’와 ‘내다’를 분석 설명함으로써 최근의 보조동사 의미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조동사에 쓰이는 문장들의 통사구조를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고 다만 보조동사가 그 앞에 나타나는 명제적 요소에 대하여 modal 요소로 쓰이는 것이라는 점만 확인하였는데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본론에서 설정해 놓은 10가지의 보조동사들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그 의미·기능을 규명해 보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버리다’나 ‘내다’ 이외의 다른 보조동사들도 그것들이 각각 어떤 고유의 실질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앞에 있는 명제부분에 대한 말할이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법요소라는 점은 마찬가지임을 밝혀 둔다.

이제 이 글의 핵심이 되는 점을 다시 아래에 간략히 적음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1. 국어의 보조동사는 본동사와 함께 하나의 복합관계를 이루는 실사가 아니라 명제에 대한 modal 요소이다.
2. 이러한 보조동사로는,
 - ① 버리다, ② 내다, ③ 가다/오다, ④ 보다, ⑤ 주다, ⑥ 지다, ⑦ 쌓다, ⑧ 대다, ⑨ 놓다, ⑩ 두다의 10가지가 있다.
3. 지금까지의 보조동사의 의미분석에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

(이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해 만들어 졌음.)

참 고 문 헌

- 김민수(1977). 국어 문법론. 서울: 일조각.
- _____(1981). 국어 의미론. 서울: 일조각.
- _____(1982). 신국어학사. 서울: 일조각.
- 남기십(1976). “국어의 시제”. 언어, 1—2.
- 박승빈(1935). 조선어학. 조선어학연구회.
- 서정수(1971). “국어의 용언어미 {어(서)}”.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 _____(1978). “국어의 보조동사”. 언어, 3—2.
- _____(1980).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I)”. 한양어문연구, 1. 한양대학교.
- 유길준(?). ‘조선문전’(필사본). 한국역대문법대제, 1—1. 서울: 탑출판사.
- _____(1909). 대한문전. 한국역대문법대제, 1—2. 서울: 탑출판사.
- 이기동(1976). “조동사의 의미분석”.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 _____(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분석”, 말, 2. 연세대 어학당.
- _____(1978a). “조동사 ‘지다’의 의미연구”. 한글, 161. 한글학회.
- _____(1978b). “조동사 ‘있다’의 의미연구”. 눈의 허웅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서울: 과학사.
- _____(1979). “조동사 ‘놓다’의 의미연구”. 한글, 163. 한글학회.
- 이희승(1976).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전재호·박병채(외)(1981). 신국어학개론. 대구: 형설출판사.
- 정렬모(1946). 신원고등국어문법. 서울: 한글 문화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황병순(1979). 국어 조동사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kmajian and Henry(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변형영어통사론, trans. 윤석화(1982). 서울: 한신문화사
- Lee, Hong-bae(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서울: 법한출판사.
- Sohn, Ho-min(1973). “Coherence in Korean ‘Auxiliary’ verb Construction”. 어학연구, 9—2.
- _____(1976). “Semantics of Compound Verbs in Korean.” 언어, 1—1.
- Yang In-Seok(1978). Korean Syntax. 서울: 탑출판사.